

동상





행복이 가득찬 '봉산 통새미'



성지민 | 창원 자여초등학교 2학년

“지민아, 지원아, 외할머니 댁 가자.”

“네, 준비할게요.” 우리 외할머니 댁은 나만의 지름길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같은 동네다. 나와 동생도 여기에서 태어났지만, 우리 엄마도 여기 자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여 토박이시다. 그래서 나는 엄마 덕분에 친구들이 모르는 길도 몇 가지 알고 있다. 외할머니 댁 가는 골목길에는 볼거리가 많다. 비오는 날 풍경이 그려진 벽화도 있고, 딱 봐도 백 살은 넘어 보이는 당산나무도 있다. 그중에 최고는 저 수상한 돌덩이다. 분명히 여긴 수라할머니네 경운기 주차장인데 저게 왜 있지? 오늘은 엄마에게 꼭 물어봐야겠다. “엄마, 궁금한 게 있어요. 저 돌은 뭐예요?”

“어떤 거? 저기 있는 비석?” “비석이요? 그게 뭐예요?” “비석은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, 없어진 자리를 표시해놓기 위해 세워둔 이름표 같은 거란다.”

가까이 가서 보니 돌에 날짜와 글씨가 새겨져 있다. ‘통샘터’, 갑자기 나의 궁금증이 폭발하기 시작했다. 그러자 엄마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시더니 엄마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다. 옛날부터 이 자리에는 마을 뒤 정병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만든 아주 큰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. 네모 모양에 어른 10명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, 깊이는 손을 위로 쪽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 아주 깊고 크다. 이름은 ‘봉산 통새미’이다. 우물은 항상 넘쳐 흘렀고, 깨끗하고 시원해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누구나 와서 한 모금씩 마셨단다. 그리고 마을 잔치가 있는 날에는 이 물로 밥도 짓고 국과 반찬도 만들어 모두가 푸짐하게 드셨다고 한다. 또, 우물 대청소 날이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서로 도와가며 즐겁게 청소도 하셨단다. 엄마의 어릴 적 통새미는 친구들과 술래잡기, 비석치기, 땅 따먹기 놀이를 하던 놀이터도 돼주었다.

나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았다. 통새미에서 졸졸 흐르는 물도 마셔보고, 친구들과 줄넘기 공기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내 모습. 눈을 살포시 뜨니 흐뭇한 미소가 난다.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분명히 여기는 행복한 일만 가득한 행복 통새미였을 것이다. 나는 우리 마을이 참 좋다. 작은 마을이지만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다. “친구들아~ 나랑 같이 봉산 통새미에 놀러가자!”